

상실·우울을 건너... 다시 마주한 시간을 기록하다



새로운 책



▲맨드라미 꽃물 같은 울음이 가득 차올랐다=전경숙 저자
2019년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 신인상으로 등단한 전경숙 시인의 첫 시집이 출간됐다. 이 시집은 전체적으로 단아하면서도 애뜻한 진정성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제1부는 삶과 세계와 시간과 길에 대한 사유가 펼쳐지며, 2부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시선을 담았다. 사랑의 상실로 인한 여러 고통을 다양한 대상으로 변주하는 시편들은 3부에 모여 있다. 고재중 시인은 이 시집에 대해 "시적 구조나 완성도 면에서 남다른 재주를 보여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시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문학들·1만2천원



▲너의 나쁜 무리=에소연 저자
'너의 나쁜 무리'는 타인의 부정적이고 위태로운 모습에 거리를 두다가도 결국에는 휩쓸려 '우리'가 되고 마는 이들의 결속과 유대에 관한 이야기다. 함께 역경을 헤쳐감으로써 때려야 할 수 없는 관계로 엮이는 인물들의 징글징글한 애증을 다룬 일곱 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불가해한 타자와 불가피하게 한통속이 되는 인물들을 통해 불화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식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겨레출판사·1만7천원



▲빵의 시간=김남순, 최낙언 저자
빵은 밀가루, 소금, 효모, 물만 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처럼 단순한 재료로 놀랍도록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소한 배합비, 작업 순서, 온도, 시간의 차이에 따라 재료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결국 빵 맛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능력에 있다. 이 책은 빵의 레시피 북이 아니다. 한낱 곡물에 불과했던 밀이 어떻게 서양 문명의 핵심 작물이 됐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변화가 맛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탐구한다. /에문당·2만8천원



▲아직 여기에 있어=전성현 저자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서늘하고도 다채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다섯 편의 작품을 모았다. 인간이 정교하게 구축한 세계 곳곳에서도 균열이 일어난다. '아직 여기에 있어'는 그 균열의 순간을 들여다본다. 0과 1로 이뤄진 게임 속 세상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고, 유전자 편집으로 완벽한 인간을 설계해도 결함이 나타난다. 이 작품은 완벽을 향해 나아가려는 세계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들, 실제 너머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창비·1만5천원

박노식 시인 6번째 시집 '관찮은 꿈' 출간



상실과 우울, 설움의 정서를 중심으로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감각과 사유를 담아낸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박노식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관찮은 꿈' (문학들)이다. 박 시인은 광주 동구 '시인 문병란의 집'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화순 한천면에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2024년 시집과 시화집을 연달아 펴낸 데 이어 올해 신작까지 선보이며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삶의 고통, 시간의 흐름 담아낸 4부 구성 고독 속에도 이어지는 존재의 시간 그려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상실이 큰 사람은 침묵을 일찍 배운다', 2부 '나는 우울의 집에서 태어나 오래 걸었다', 3부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거기에 설움이 있기 때문', 4부 '한때의 상큼한 노래는 깨어진 조각처럼 뒹군다' 등 각 부에서 드러나듯 시집 전반에는 상실과 우울, 설움이 반복적으로 호명된다. 시인은 자연의 이미지와 기억을 겹쳐 놓으며 시간의 흐름을 풀어낸다. '무늬'에서는 "오늘의 푸른 잎은 어제의 낙엽이 건네준 비에"라고 말하며 현재와 과거가 이어지는 생의 순환을 짚는다. 흔들리는

있을 바라보며 "잎마다 표기할 수 없는 악보들이 숨어서" "나의 귀는 어느덧 소리의 애인이 됐다"고 표현한 '오래 흔들리는 잎들은'에서는 일상의 장면을 감각적으로 포착한다. 시집에는 이별과 삶의 태도도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떠나는 것은'에서는 떠남을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표지의 아름다움을 가만히 덮어두는 일과 같다"고 비유한다. 시집 곳곳에 배치된 이러한 구절들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한다. 고통에 대한 인식도 시집의 중요한 축이다. '낙화'에서는 "나는 우울의 집에서 태어나 오래 걸었다"고 밝히며, "고통이 나를 키웠고" 그 흔적이 현재의 자신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떨어진 꽃잎은 쓸쓸하여도 그 향은 오래 남아서 내가 존재한다"고 덧붙이며 고통의 시간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같은 시선은 '폐가'와 '관찮은 꿈'에서도 나타난다. 폐가에서 '녹슨, 붉은 못 하나를' 꺼내 들며 누군가의 '친절한 노크'를 기다리는 장면이나, 눈길에 미끄러진 그라니가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끝내 일어나 제 길을 가는 모습은 시집 전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시인은 고립된 상태를 스스로 감내하는 존재로 자신을 그린다. '아주 오래 혼자인 사람'에서는 밤마다 하늘에 올라 '별들의 파수병'이 되는 장면을 통해 고독 속에서도 이어지는 존재의 시간을 그려낸다. 한편 박노식 시인은 광주에서 태어나 2015년 '유심'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 '고개 속인 모든 것', '시인은 외톨이처럼', '마음 밖의 풍경', '길에서 만난 눈송이처럼', '가슴이 먼저 울어버릴 때' 등을 펴냈으며,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수혜했다. /최명진 기자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학교폭력 판례 바꾼 2년의 기록

이태유 저자 회고록...학교폭력·징계 절차문제 드러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딸의 역할을 바로잡기 위해 2년여간 법적 대응에 나선 한 어머니의 기록이 책으로 나왔다. 이태유 저자의 회고록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는 개인의 승소 경험을 넘어,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방향을 짚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판례들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 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이끌어낸 '학교폭

력 행정의 3대 원칙'이다. 법원 판단을 통해 정립된 이 원칙들은 기존 교육 현장의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먼저,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원은 구체적 이유 없이 내려진 징계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교육 당국이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징계 역시 위법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객관성을 결여한 조사로 판단되며, 조사 과정에서의 균형성과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이 확립됐다.

여러 학생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동일하게 처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학생별 행위와 상황을 개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개별 심의의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이 같은 판례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조사와 징계 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이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태유 저자는 "처음에는 처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에 막막했지만, 아이의 믿음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이 기록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